

# 박현경, 코로나 뚫고 감격의 '첫 메이저 킴'

### KLPGA 챔피언십 17언더파 271타...2년만에 첫 우승 배선우·임희정 공동 2위...국내 신예들 우승 경쟁 치열

박현경(20)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열린 골프 대회에서 '메이저 여왕'에 등극했다.

박현경은 17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숲길 코스(파72·6601야드)에서 열린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총상금 30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박현경은 KLPGA 투어 2년 차로 29번째 대회 출전 만에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2억 2000만원이다.

2000년생 박현경의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지난해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임희정(20) 이후 2000년 이후 출생 선수의 KLPGA 투어

두 번째 메이저 챔피언이 탄생했다.

임희정은 이번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3타 차 단독 선두를 달리며 메이저 2승째를 노렸으나 이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20살 동갑' 박현경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배선우(26)와 함께 1타 차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를 통틀어 사실상 가장 먼저 재개된 프로 골프 대회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미니 투어 대회가 진행 중이지만 상금 규모나 출전 선수 수에서 KLPGA 챔피언십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번 대회에는 KLPGA 투어 선수를 외에 미국과 일본 투어에서 뛰는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전 세계 골프 팬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2000

년생 박현경이 우승, 동갑 임희정이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국내 신예'들의 우승 경쟁이 치열했다.

전반에 2타를 줄인 박현경은 선두 임희정에게 2타 뒤진 상황에서 10번 홀(파4) 위기를 맞았다.

약 4m 만만치 않은 거리에서 파 퍼트를 남겼으나 이를 넣으며 임희정과 2타 차를 유지했다. 만일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3타 차로 차이가 벌어질 뻔했다. 위기를 넘긴 박현경은 11번부터 13번 홀까지 3연속 버디를 쓸어 담고 단숨에 2타 차 단독 1위가 됐다.

12번 홀(파3)에서 약 7m 긴 거리 버디 퍼트로 공동 선두가 된 박현경은 13번 홀(파4)에서는 공동 1위였던 임희정과 '버디-보기'로 엇갈리며 순식간에 2타 차이를 냈다.

임희정이 15번 홀(파5) 버디로 1타 차로 추격해 왔으나 박현경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파를 지켜내며 우승을 확정했다.

김효주(25)가 이소영(23)과 함께 나란히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첫 키스 17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42회 KLPGA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한 박현경이 우승 트로피에 키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 브룩스, 두산 타선에 '흔썬'



홈 시수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두산 1회 초 2사 1루에서 5번 최주환의 2루타 때 1루 주자 오재일이 홈까지 파고들었으나 KIA 포수 백용환에게 태그아웃되고 있다. /연합뉴스

### KIA 주말 3연전 1-2 루징시리즈 브룩스, 5.1이닝 11안타 5실점 터커, 9회말 만루 기회 무산 아쉬움

'호랑이 군단'이 고퍽과의 시즌 첫 만남에서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시즌 3차전에서 4-6으로 졌다.

두 팀은 앞선 대결에서는 13-4의 스코어를 주고받으면서 나란히 1승씩 챙겼다. 15일 두산이 3개 홈런 포함 장단 18안타로 13점을 뽑으며 첫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16일에는 4안타(1홈런) 7타점의 터커를 앞세운 KIA가 13점을 만들어 설욕전을 펼쳤다.

KIA는 3차전에서 애런 브룩스를 내세워 마운드 대결을 벌였지만 경기는 두산 알칸타라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브룩스가 5.1이닝 11피안타 7탈삼진 5실점(4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고, 알칸타라가 7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5피안타(1피홈런) 9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KIA가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브룩스가 1회부터 3안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다. 2회초도 연속 안타로 시작했지만 브룩스는 병살타와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정리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자 바로 KIA에 추격의 기회가 찾아왔다.

최형우와 나지완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 윌리엄스 감독이 최원준에게 번트 사인을 내며 승부수를 던졌다. 보내기 번트가 성공하면서 1사 2·3루가 만들어졌다. 타석에는 전날 4안타를 펄쩍 황순호가 들어섰지만 짧은 중견수 플라이가 나오면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유민상의 삼진으로 소득없이 2회가 끝났다.

브룩스는 3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했지만 4회와 5회 연달아 실점했다. 4회 2사에서 연속 안타를 허용했고, 선두타자 정수빈을 내보낸 5회에도 1사 1루에서 연속 2루타로 점수를 내줬다.

브룩스는 1-4로 뒤진 6회초 3루수의 실책과 허경민의 우정안타로 다시 무사 1·3루에 몰렸다. 브룩스는 정상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뒤 5회 1사에서 세 번째 등판을 마무리했다.

2회 위기를 잘 넘긴 두산 알칸타라는 4회 선두타자 터커에게 솔로포는 맞았지만, 7회까지 추가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며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1-6으로 뒤진 9회 KIA가 상대의 실수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1사에서 나지완의 좌전 안타에 이어 대타 황대인의 2루타가 나오면서 2-6. 황순호가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대타 이우성이 볼넷을 골라냈다. 그리고 백용환의 땅볼 때 두산 3루수 허경민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3루에 있던 황대인이 홈을 밟았다.

두산이 함덕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다시 볼넷이 이어지면서 2사 만루가 됐다. 김선빈의 땅볼 타구가 유격수 류지혁 앞으로 향하면서 경기가 종료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KIA에 행운이 찾아왔다.

류지혁이 여유 있게 2루로 공을 던진 사이 박찬호가 먼저 베이스를 밟아, 야수 선택이 기록됐다. 이어 최근 KIA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터커가 타석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하지만 터커의 땅볼 타구가 포수 앞에 떨어지면서 기대했던 역전극은 나오지 않았고, 워닝시리즈는 두산의 차지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

## 핑 먹고 알 먹은 터커의 홈런



17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홈런존' 주인공이 된 KIA 터커가 부상으로 받게 될 쏘렌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두산전 시즌 5번째 홈런포 홈런존 맞춰 쏘렌토 획득

KIA 타이거즈의 '신승 해결사' 터커가 시즌 5호포로 자동차를 탔다.

KIA 터커는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시즌 3차전에서 시즌 5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0-2로 뒤진 4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터커는 알칸타라의 150km 직구를 공략해 담장을 넘겼다. 자신의 시즌 5번째 홈런은 '행운의 홈런'이기도 했다.

터커가 때린 공은 챔피언스필드 외야에 위치한 홈런존 벽면을 맞고 떨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는 외야 우중간 잔디석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기아자동차 차량을 전시하고 있다. 이 구조물이나 차량을 직접 맞히는 선수에게는 해당 전시 차량을 증정하고 있다.

터커는 구조물을 바로 맞히면서 홈런존 4번째 주인공이 됐다. 터커는 홈런존에 전시된 동일 모델의 쏘렌토 차량(3600만원 상당)을 받는다.

앞서 홈런존을 공략한 선수는 세 명이 있었다. 가장 먼저 2014년 4월 14일 두산 김재환이 홈런존을 맞히며 K5를 받았다. 2015년 4월 14일에는 KIA 최희섭이 쏘렌토를 받았고, 2017년 한국시리즈 1차전(10월 25일)에서는 두산 오재일이 백투백 홈런으로 홈런존을 때리면서 팀의 승리와 스타팅을 동시에 챙겨갔다.

## 덕아웃 T 특특 극과 극 성적에 윌리엄스 감독 "야구가 그렇다"

▲야구라는 게 그렇다 = KIA는 시즌 초반 극과 극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이며 '도깨비팀'이 됐다. 지난 15일 두산에 4-13 대패를 당했던 KIA는 16일에는 반대로 13-4 대승을 거두며 설욕전을 했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력에 윌리엄스 감독은 "야구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야구가 특별한 것 같다. 24시간 안 돼서 다른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게 야구다"며 웃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KIA 불펜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KIA는 지난 16일 두산전에 앞서 좌완 김명찬을 콜업했다. 등투와 함께 첫 등판에 나선 김명찬은 페르난데스를 삼구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오재원도 삼진으로 처리하는 등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복귀전이었다. 김명찬은 지난 2017시즌이 끝난 뒤 경찰청에서 입대,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가을 팀에 돌아왔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스프링캠프에

프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김명찬은 "3년 만에 1군 마운드에 올라가는 거라서 긴장 많이 했다"며 "제대하고 나서 몸무게도 많이 늘고, 어깨 부상도 겹치면서 좋지 못했는데 잘 준비하고 기다린 게 좋은 결과로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스피드도 많이 올라왔는데 1군 등판에서 더 잘 나온 것 같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처음 피칭을 봤는데 좋았다. 오랜 시간 많이 못 던졌기 때문에 등판 일정 등을 조절하면서 기용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KBO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 지난 15·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두산의 경기가 ESPN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도 관심사가 됐던 중계, 터커는 미국에서도 화제의 이름이 됐다. 특히 15일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기대주인 '동생' 카일 터커가

중계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16일에는 터커의 대학 은사가 중계에 참여했고, 터커의 인터뷰가 방송을 타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날 터커는 홈런 포함 4안타로 개인 한 경기 최다인 7타점을 기록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16일 경기가 끝난 뒤 "(동생이 중계한) 어제 오늘 같은 활약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취재진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트린 터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KBO가 미국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KBO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ESPN 생중계에 맞춰 16일 1루 관중석에 'Be Strong MLB! We're in this together' (힘을 내요 MLB! 우리가 함께 할게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20X15m)을 걸어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코로나 19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응원을 보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